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	------	---

1. 다음 가상 대화에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합리적인 지성을 바탕으로 보편적 선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개인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종교적 계율을 지켜야 한다.
- ③ 세계의 객관적인 본질을 파악하여 고통을 제거해야 한다.
- ④ 불안을 일으키는 선택을 회피하고 도덕규범에 따라야 한다.
- ⑤ 신 앞에 홀로 서서 신에게 귀의할 것을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2.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이기(理氣)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지내온 근본 내력[所從來]에 근거하여 그 주된 것[所主]을 가리켜 말할 수 있다. 본연지성은 이(理)를 주로 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기를 주로 한 것이다.
 을: 사단은 본성에서 본연지성을 말한 것이고, 칠정은 이와 기를 합쳐서 말한 것이다. 기질지성은 본성이 기질 가운데 있는 것이니, 본성을 돌로 나눈 것이 아니다.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정을 돌로 나눌 수 없다.

— <보 기> —
 ㄱ. 갑: 천리(天理)는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이다.
 ㄴ. 갑: 순전한 사단에는 이만 있고 칠정에는 이기가 함께 있다.
 ㄷ. 을: 사욕(私慾)을 제거하여 편벽된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
 ㄹ. 갑, 을: 이와 기는 외부와의 감응 없이 스스로 발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명석 관명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것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확신할 정도의 완벽한 검사를 통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참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을: 명석 관명한 관념은 필연성에서 생겨난다. 모든 관념은 신 안에 양태로 있으며, 유일한 실체인 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과 관련한 관념만이 참이며 타당하다.

— <보 기> —
 ㄱ. 갑: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 자체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ㄴ. 을: 참된 자유는 우주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할 때 가능하다.
 ㄷ. 을: 최고의 덕은 만물의 근원인 인격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ㄹ. 갑, 을: 감각과 경험으로 명석 관명한 지식을 확증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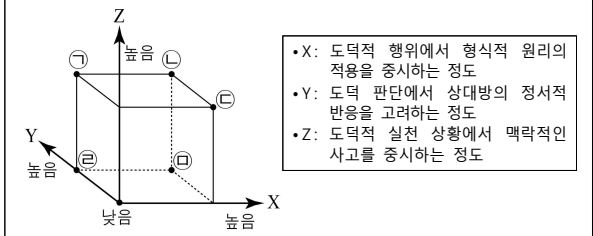
4.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있음[有]과 없음[無]이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이 서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이 서로 있게 되고, 앞과 뒤가 서로를 따른다. 이 때문에 성인(無爲)의 일에 머무르면서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 ① 도에 따라 만물이 극에 달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본다.
- ② 타고난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 자연에 내재한다고 본다.
- ④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 분별적인 지혜를 쌓아야 한다고 본다.
- ⑤ 일체의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아야 무위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5.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 비해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보편적 법칙에 맞는 행위는 의무 의식에 따른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순수한 실천 이성(우리가 도덕 법칙이라고 부르는 보편적 법칙)을 부여한다.
 을: 보편화 가능성이란 유사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사이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중시하는 우리는 그것이 추상적이므로 배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윤리와 사상

6. 고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우리가 목적으로 추구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욕구 충족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 온 세상이 쾌락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을: 우리가 직면한 목적은 외적 현상들을 자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욕구에 있어서는 얻고자 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회피하고 싶은 것에서는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강제당하지 않고 신의 질서에 일치하는 것이다.

- ① 갑: 소규모 공동체에서 우정을 통해 즐거운 삶을 영위해야 한다.
- ② 갑: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발생한다.
- ③ 을: 인간은 의지를 발휘하여 외적인 사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④ 을: 전체로서의 세계이자 이성적인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
- ⑤ 갑, 을: 유덕한 삶을 위해 사려 깊음을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7.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인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아서 마음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답이나 개는 찾으면서 마음은 찾을 줄 모르니 안타깝다. 학문의 길은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을: 도공은 흙을 반죽하여 기와를 만든다. 그렇다면 기와는 도공의 위(僞)에서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도공의 본성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성인은 사려를 쌓아 위를 익힘으로써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일으킨다.

- ① 갑은 인과 의에는 하늘의 의지[天命]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인위적 규범인 예로써 욕구 충족의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인간 본성에 선의 단서는 없지만 선을 알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예로써 인간관계를 분별하여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은 인간의 본성을 함양의 대상으로, 을은 교화의 대상으로 본다.

8. 한국 근대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모든 사람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데에서 나온다. 우리의 도[天道]는 인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을: 나의 도는 상생(相生)의 도이다. 만고의 한을 풀고[解怨] 후천을 개벽하여, 선(善)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후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웃으며 살 수 있다.

<보 기>

- ㄱ. 갑: 동양의 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 ㄴ. 을: 현세의 선천을 지나 내세에서 후천 세상을 열어야 한다.
- ㄷ. 을: 누구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가는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 ㄹ. 갑, 을: 신분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근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이성은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부인(否認)하여 중단시키거나, 찬동하여 일으킬 수 없다. 이성은 단지 원인과 결과의 연관을 알려주어 정념이 드러날 계기를 제공할 뿐이다.
 을: 이성을 통한 의무 의식은 경험에 의한 동기보다 더 강력해서 스스로 존엄성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 의식은 모든 경험적인 동기를 경멸하고, 점차 그것들을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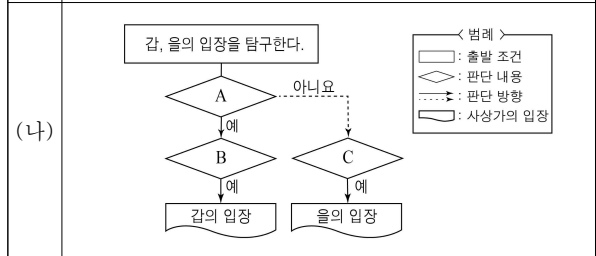
<보 기>

- ㄱ. 갑: 행위의 선악을 판단할 때 유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 ㄴ. 을: 의무 이행을 통해 경향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ㄷ. 을: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 준칙은 언제나 정당화가 가능하다.
- ㄹ. 갑, 을: 이성에 기초한 도덕성으로 도덕적 행위가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0. (가)의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사람들은 공통의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협받는다. 그들은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의 가능한 평화 규약을 맺는다.
 을: 사람들은 재산 향유를 위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최소한의 구속을 수용한다. 그들은 공동체 결성에 합의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보 기>

- ㄱ. A: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가 있는가?
- ㄴ. A: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가?
- ㄷ. B: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 ㄹ. C: 계약 당사자는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1~12]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정의는 강한 자의 이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스림을 받는 자 자신에게는 해가 되고, 남에게는 좋은 것, 즉 통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의를 지혜인 덕의 한 종류로 간주해야 한다.
 을: 정의는 강한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통치자의 이익이 아니라 남에게 좋은 것, 즉 복종하는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지혜인 덕의 한 종류로 간주해야 한다.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은 현실의 삶에서 약자에게 유익한 것을 부정의로 본다.
 ㄴ. 을은 정의의 덕이 지혜를 본질로 하여 드러난다고 본다.
 ㄷ. 을은 덕이 있는 삶을 선의 탁월성이 실현된 상태라고 본다.
 ㄹ. 갑, 을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2.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의를 행해야만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행위자는 우선 알아야 하고,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하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야 한다.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인 탁월성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 ①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을 본성으로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다.
 ② 영혼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을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무엇이 나쁜지를 알면 그것을 행하지 않을 것임을 간과한다.
 ④ 모든 종류의 덕에 실천적 지혜가 갖추어져 있음을 간과한다.
 ⑤ 덕과 악덕이 자발적 행위에 의한 습관의 결과임을 간과한다.

13.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두 가지 사랑이 두 나라를 건설했다. 지상의 나라는 인간의 자기 사랑에 의해 창조되었고, 천상의 나라는 신의 사랑에 의해 창조되었다. 전자에서 인간은 남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 후자에서 인간은 신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다.
 을: 신의 존재는 다섯 가지의 길로 증명할 수 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길은 운동으로부터 얻어진다. 우리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움직여진 것이 아닌 어떤 제1 원동자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이 존재를 신으로 여긴다.

- ① 갑: 인간은 이성보다 신앙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② 갑: 악은 신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이다.
 ③ 을: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 반영된 자연법은 변경될 수 있다.
 ④ 을: 신의 존재는 인간의 고유 성품인 이성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⑤ 갑, 을: 신의 은총은 인간이 구원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14. (가)를 주장한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사람과 사물이 생성될 때 똑같이 천지의 이(理)를 얻어 성(性)으로 삼았으니, 이것을 본연지성이라 한다. 사람과 금수의 본연지성은 차이가 없지만, 사람만이 형기의 바름을 얻어 온전하게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ext-align: center;">(A)</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 text-align: center;">(B)</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 </table>								(A)				(B)								
		(A)																			
	(B)																				
(나)	<p>[가로 열쇠] (A): 격에 맞는 일정한 방식 예) ○○을 갖추다. (B): 모든 사건이나 사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본다는 의미로 장자가 제시한 용어</p> <p>[세로 열쇠] (A): 개념</p>																				

- ① 형벌에 의지하지 않고 도덕으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② 인간과 사물 각각에 내재한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③ 성인이 되는 방법으로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개이다.
 ④ 인간이 노력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선천적인 도덕 능력이다.
 ⑤ 사욕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사람들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점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의 증진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목표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을: 지금까지 존재해 온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역사적으로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끊임없이 대립하여 중단 없는 싸움을 전개해왔다. 노동자가 잃을 것은 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온 세상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시장에서 재화의 교환과 분배를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의 보장을 강조하였고, 을은 ㉡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또한 갑은 ㉢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고, 을은 ㉣ 개인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회 정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평등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구성원들의 진정한 자유의 실현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法)은 그 본성이 둘이 아니고, 참됨과 거짓됨의 두 문은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이다. 이 둘이 아닌 것이 모든 법의 진실이므로 허공과 같지 않으며, 그 본성이 스스로 알아차리므로 일심(一心)이라 한다.
 을: 열음이 전부 물임을 알아도 햇빛을 받아야 녹을 수 있고, 열음이 녹아야 물이 흘러 논밭에 물을 대거나 물건을 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범부가 바로 진여(眞如)임을 깨달았더라도 법의 힘을 빌어서 닦고 익혀야 한다.

- ① 갑은 모든 중파가 막힘없이 원만하게 서로 소통할 것을 강조한다.
- ② 갑은 제도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무애행(無碍行)을 강조한다.
- ③ 을은 정혜(定慧)를 닦아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 ④ 을은 불성을 깨달은 후에도 습기(習氣)를 제거할 것을 강조한다.
- ⑤ 갑, 을은 번뇌의 원인이 마음 밖의 외부 세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공리의 원리에 일치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행위인지를 확인하려면 쾌락과 고통 각각의 다산성, 순수성 등을 합산하여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살펴보면 된다.
 을: 공리의 원리에 따라 경우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때,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양과 질에서도 최대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궁극 목적이 된다.

- ① 갑: 공동체의 이익은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에 불과하다.
- ② 갑: 행복과 불행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한다.
- ③ 을: 이타적인 의도에 의한 행위 그 자체는 항상 좋은 것이다.
- ④ 을: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삶의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다.
- ⑤ 갑, 을: 행위 결과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18. (가), (나) 사상의 옳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개인은 스스로 자유롭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이다. 국가는 이러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특정한 가치관을 선호하는 의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
 (나) 개인은 사회적 삶이라는 형식에 뿌리를 두고 생활한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 시민 등 각자의 목적을 지닌 지위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기>
 가. (가): 국가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나. (나): 국가는 좋음[善]의 기준을 제시하고 권장해야 한다.
 다. (나): 도덕은 공동체의 전통과 가치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라. (가), (나): 개인의 자이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이 (나)의 사상가에게 제기할 옳은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어떤 분배가 정의로운 조건은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이다. 분배 정의란 모든 사람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을: 모든 사회적 재화나 재화의 집합은 각기 그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 작동하는 분배 영역이 있다. 경제적 재화인 돈은 성직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신앙심도 시장에서 어떤 이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나)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사회·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합니다. 제1 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측면에 적용됩니다. 제2원칙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데 기여합니다.

<보기>
 가. 갑: 사회적 재화를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함을 간과한다.
 나. 갑: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세는 재산권의 침해임을 간과한다.
 다. 을: 단일한 분배 원리가 영역별 자율성을 훼손함을 간과한다.
 라. 갑, 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 ④ 가, 나, 라 ⑤ 나, 다, 라

20. 다음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명(命)과 도(道)가 있어서 성(性)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자기[己]와 남[人]이 있어서 행(行)이라는 이름이 생겼으며, 성과 행이 있어서 덕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러므로 성만으로는 덕이 될 수 없다. 자기가 있고 남이 있어서 친(親)한 사람부터 친하게 대할 때, 그것이 바로 효(孝)이다.

<보기>
 가. 측은지심을 확충함으로써 인(仁)이라는 덕이 생겨난다.
 나. 타고난 본성의 차이로 인하여 행위의 선악이 결정된다.
 다. 영지의 기호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본성이다.
 라. 인간과 동물은 모두 하늘로부터 기질지성을 부여받았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